『洪武正韻譯訓』 훈민정음 표기 'ㅖ'의 음운론적 대응

안영희*

要約

중국 운서 『洪武正韻』의 齊h韻에 대한 『洪武正韻譯訓』의 훈민정음 표기는 'ㅖ'이지만 중국음운학계 齊h韻의 재구음은 /i/이다. 이러한 차이는 重紐h韻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洪武正韻』에서의 重紐h韻은 전통적인 重紐와 달리 舌齒音에서도 나타나며 그 차이는 개음과 모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고는 重紐h韻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洪武正韻』의 齊h韻은 고모음 /i/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중모음 /ɛ/도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훈민정음 표기 'ㅖ'는 실제로 산재되어 있는 중모음 /ɛ/의 重紐h韻과만 음운적으로 대응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洪武正韻譯訓』의 한계로 보기보다는 우선 중국 운서 『洪武正韻』이 운서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운서였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당시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들은 기본적으로 『洪武正韻』의 체재를 따르는 한편, 최대한 『洪武正韻』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핵심어: 洪武正韻譯訓, 훈민정음, 止攝, 蟹攝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서론

『洪武正韻譯訓』(1455, 이하 『譯訓』으로 약칭함)은 申叔舟 등이 왕의 명에 의하여 『洪武正韻』의 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운서이며, 76韻 체계의 『洪武正韻』을 따랐고 총 16권 8책으로 되어 있다.[1] 『譯訓』에서 正音은 전통 韻圖와 韻書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가리키고, 俗音은 실제로 중국인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운도나 운서에 맞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본고는 正音의 'ㅖ'와 『洪武正韻』의 齊h韻[2]과의 음운론적인 대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ㅖ'와 齊h韻에 수록된 止攝 글자는 음운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齊h韻에 수록된 止攝 및 蟹攝글자들의 中古 시기 음운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제3장에서는 『洪武正韻』에서 나타나는 齊h韻의 음운현상을 다루고, 제4장에서는 『譯訓』의 훈민정음 표기 'ㅖ'와 重紐h韻과의 음운적 대응을 살펴 볼 것이다.

---

1) ① ≪洪武正韻譯訓≫의 初刊 原本은 李聖儀가 소장하고 있다가 1972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되었다. 현재 제1책인 1, 2권은 소실되어 현존하는 것은 총 14권 7책이다.

② 현재 발견된 『洪武正韻』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樂紹鳳, 宋濂 등이 만들고 宋濂이 序를 써서 洪武八年(1375년)에 반포한 것으로 76韻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汪廣洋, 朱孟辯 등이 수정하고 吳沉이 序를 써서 洪武十二年(1379년)에 반포한 것으로 80韻 체제를 이루고 있다. 후세에 남겨진 ≪正韻≫은 대부분 76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80韻 ≪正韻≫은 北京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는 한 부 뿐이며, 2003년 寗忌浮에 의해 발견되었다.

2) 『洪武正韻』의 韻에 소문자 h를 덧붙여 전통 운서 즉『廣韻』의 운들과 구별한다. 예를 들면, 齊h韻은 『正韻』의 운을 말하며 齊韻은 『廣韻』의 운을 말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한 설명 없이는 四聲相承에 의해 '齊h韻'으로써 平聲, 上聲, 去聲 모두 포함한다.

2. 중고 한어의 음운 특징 및 문제의 제기

齊h韻에 수록된 글자는 대부분 중고한어 止攝과 蟹攝의 3·4等韻 글자들인데, 먼저 이 글자들이 중고한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다.[3)]

첫째, 重紐이다. 重紐의 차이는 개음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4)] 개음의 음가에 대하여, 鄭張尙芳(1987:184)은 상고음으로 부터 *r〉ɣ〉ɯ〉ɨ〉i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정하였으며, B류의 개음이 A류 개음보다 후설성을 지닌다는 점에 근거했을 때, B류는 위의 발전단계에서 /r/과 /i/의 중간 단계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가를 갖는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를 기초로 권혁준(2002:13)에서는 B류 개음을 [+grave] 자질을 갖는 활음(glide) /ɨ/으로 설정하였고, A류 개음은 [+acute] 자질을 갖는 활음 /j/으로 설정하였다.

---

3) 漢語史는 크게 상고한어, 중고한어, 근대한어, 현대한어의 4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麥耘(2002)에 의하면 중고한어는 5세기 초의 南北朝시기에서 12세기 北宋시기까지를 일컫는데, 중고한어를 또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南北朝에서 盛唐까지 전기, 中唐에서 北宋까지 후기로 하였다. 본고는 이에 따를 것이며, 전기 중고한어를 'EMC(Early Middle Chinese)'로, 후기 중고한어를 'LMC(Late Middle Chinese)'로 약칭한다.

4) ① 重紐란 『切韻』계 운서와 早期 等韻圖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支·脂·祭·眞(諄)·仙·宵·侵·鹽 및 이에 상응하는 上·去·入聲의 脣牙喉音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며 等韻圖에서도 3등칸과 4등칸에 나뉘어 배치되는 현상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흔히 重紐3등을 B류, 重紐4등을 A류라고 한다. 重紐의 차이에 있어 일반적으로 성모의 차이, 주요 모음의 차이, 개음의 차이라는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뉜다. 현재 학계에서는 梵漢 대역음과 베트남 한자음, 고대 티베트어, 미얀마어 등 다량의 자료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 근거하여 개음에 차이가 있다는 설이 우세한 편이다.

② 漢語 음절은 전통적인 분석법에 의하여 (C)(M)V(E)로 표기할 수 있는데(C-성모, M-개음, V-주요 모음, E-운미), V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이며 M은 C와 V(E)사이에 위치한다.

둘째, 3등운의 분류이다. B류와 A류를 제외한 重紐 외 기타 3등운 글자들은 모두 C류로 하고 C류는 다시 두 부류로 나뉜다.[5] 麥耘(1992:122)은 『王三』의 重紐韻에서 被切字와 反切下字가 각 성모별로 접촉하는 빈도를 분석하였는데 照二組・喩三母・知組・來母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B류와 빈번히 접촉하고 A류와는 낮은 접촉빈도를 보이는가 하면, 照三組・精組・日母・喩四母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A류와는 높은 접촉빈도를 보이나 B류와는 낮은 접촉빈도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 방법으로 非重紐韻도 조사한 결과,[6] 脣牙喉音은 B류와 가까웠고 舌齒音은 重紐韻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謝美齡(1990)은 LMC의 慧琳 『一切經音義』에 쓰인 重紐 글자의 反切下字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는데, LMC에서도 동일하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즉 EMC에서든 LMC에서든 C류는 C1류(照三組・精組・喩四母・日母)와 C2류(脣牙喉音 및 照二組・喩三母・知組・來母)로 나뉘며, C1류는 A류와 가까우며 개음 /j/을 갖고, C2류는 B류와 가까우며 개음 /ǐ/를 갖는다.

셋째, 4등운의 개음이다. 4등운 글자를 D류로 하는데, EMC에서 D류의 개음은 부재한다[7]. LMC의 反切에서 3등운과 4등운 글자를 혼용하

---

5) C류를 하나로 보고 일부 학자는 A류와 가깝다고 하고, 또 일부 학자들은 B류와 가깝다고 한다. 董同龢(1965:164)는 C류가 A류와 가깝다고 보았고, 邵榮芬(1980:70-80)은 B류와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 C류를 다시 두 부류로 나누는 견해도 있는데, 陸志韋(1939:28), 麥耘(1992:122) 등이 대표적이며 많은 학자들이 따르고 있으며 대세를 이루고 있다.

6) 麥耘(1988:128-129), 沈建民(2007:81-84), 歐陽國泰(1987:9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7) EMC에서 D류 개음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랜 시간 논쟁이 있어 왔다. 4등운에 개음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로는 劉廣和(2002), 慰遲治平(2002) 등이 있고 4등운에 개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李榮(1956), 潘悟雲(2000), 梁亞東(2003) 등이 있다. 본고는 EMC 4등운 개음의 부재를 기초 전제로 한다. 反切上字의 결합 추이로 볼 때, 反切上字는 1・2・4등운이 한 류, 3등운이 따로 독립된 한 류를 이룬다. 李榮(1956:114)은 佛經의 梵語에서, 邵榮芬(1980:125)은 밀교 陀羅尼에서 모두

는 예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 한국 한자음에서도 D류가 A류와 음이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遣(견)은 A류, 見(견)은 D류이지만 言(언)은 B류이다. 민지원(2009:53-57)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LMC에 생성된 4등운의 개음은 A · C1류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LMC 3 · 4등운의 개음이 각각 A · C1류 및 D류의 개음 /j/와 B · C2류 개음 /ĭ/ 두 류로 수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中古 漢語 4등운 D류의 개음은 EMC에서 없고, LMC에서 /j/이다.

권혁준(2002)에서는 中古漢語 止攝과 蟹攝 3 · 4등운을 아래와 같이 재구하였다.

〈표-1〉 LMC에서 음운[8)]

止攝(開口)		蟹攝(開口)	
A · C1류	B · C2류	A · C1 · D류	B · C2류
-i̇ij	-ĭi̇j	-jɛj	-ĭɛj

훈민정음 모음체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름에 따라 'ㅖ'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9)] 모음 'ㅖ'와 모음 'ㅣ'를 비교하여 볼 때 'ㅣ'는 고모음이고 'ㅖ'는 이보다 낮은 모음임은 확실하다. 중고한어에서 蟹攝의 모음은 /ɛ/이고, 止攝의 모음은 /i̇/이므로 蟹攝 글자는 훈민정음 'ㅖ'와, 止攝 글자는 훈민정음 'ㅣ'와 음운적인 대응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齊h韻에 蟹攝 글자가 대부분이라면, 『譯訓』에서 'ㅖ'를 사용하

자모 e가 대역될 때 4등운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8) 이 도표의 중고한어 음운체계는 음운적인 분석이지 당시 구체적인 음가에 대한 재현이 아니다. 연구의 편리를 위하여 /ɛ/를 중모음, /i̇/를 고모음으로 부르겠다.

9) 'ㅓ'는 박병채(1973)에서 저모음 계열이고, 이기문(1972), 김완진(1978)에서는 중모음 계열에 속한다.

는 것은 당연하다. 김무림(1990:146-148)에서는 '3齊韻(齊h韻)은『廣韻』의 齊韻(蟹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중략) 止攝·蟹攝의 字가 부분적으로 3齊·2支韻(齊h韻·支h韻)에 섞여 있음을 보이지만 大勢를 그르칠 정도는 아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洪武正韻」 「譯訓」
齊薺霽 /iɛi/[iɛi] === 예

이러한 견해는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崔玲愛(1975:156, 175)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갖고 齊h韻을 /jəj/으로 재구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齊h韻의 小韻과 그 小韻에 수록된 모든 同音字들의 中古 漢語를 하나하나 찾아본 결과 蟹攝 글자뿐만 아니라 止攝 글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齊h韻에 수록된 글자 중 止攝 글자가 무려 40.5%를 차지하며, 齊h韻 총 53개 小韻에서 17개가 止攝과 蟹攝 글자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齊韻이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기에는 止攝 글자가 너무 많은 양을 차지하며, 또 그 분포가 고른 편이어서 '大勢를 그르칠 정도는 아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현대 한어에서 止攝 글자는 여전히 고모음이다. 만약 齊h韻을 중모음으로 본다면, 齊h韻의 止攝 글자들은 중고 한어 시기 고모음이었다가『洪武正韻』시기에 중모음으로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다시 고모음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음운변화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3.『洪武正韻』에서 齊h韻의 음운현상

齊h韻의 음운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모든 小韻에 수록된 글자들의 중고 기원을 찾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2〉 齊h韻의 중고기원

	平聲		上聲		去聲	
聲母	小韻	LMC	小韻	LMC	小韻	LMC
見	鷄	羈 支B開 -ɪĭij 飢 脂B開 -ɪĭij 姬 之C2開 -ɪĭij 機 微C2開 -ɪĭij 鷄 齊D開 -jɛj	己	枳 支A開 -jɨj 掎 支B開 -ɪĭij 几 脂B開 -ɪĭij 紀 之C2開 -ɪĭij 蟣 微C2開 -ɪĭij	寄	寄 支B開 -ɪĭij 季 脂A開 -jɨj 冀 脂B開 -ɪĭij 記 之C2開 -ɪĭij 旣 微C2開 -ɪĭij 猘 祭B開 -ɪɛj
					計	計 齊D開 -jɛj
溪	谿	觭 支B開 -ɪĭij 抾 之C2開 -ɪĭij 谿 齊D開 -jɛj	起	企 支A開 -jɨj 綺 支B開 -ɪĭij 起 之C2開 -ɪĭij	器	企 支A開 -jɨj 棄 脂A開 -jɨj 器 脂B開 -ɪĭij 亟 之C2開 -ɪĭij 氣 微C2開 -ɪĭij
			啓	啓 齊D開 -jɛj	契	契 齊D開 -jɛj 憩 祭B開 -ɪɛj
端	氐	氐 齊D開 -jɛj	邸	邸 齊D開 -jɛj	帝	帝 齊D開 -jɛj
透	梯	梯 齊D開 -jɛj	體	體 齊D開 -jɛj	替	替 齊D開 -jɛj
定	題	題 齊D開 -jɛj	弟	弟 齊D開 -jɛj	第	第 齊D開 -jɛj
					地	地 脂C1開 -jɨj
泥	泥	尼 脂C2開 -ɪĭij 泥 齊D開 -jɛj	你	猊 支C2開 -ɪĭij 柅 脂C2開 -ɪĭij 你 之C2開 -ɪĭij 儞 齊D開 -jɛj	泥	膩 脂C2開 -ɪĭij 泥 齊D開 -jɛj
幫	篦	篦 齊D開 -jɛj				
明	迷	彌 支A開 -jɨj 迷 齊D開 -jɛj	米	弭 支A開 -jɨj 靡 支B開 -ɪĭij 米 齊D開 -jɛj	寐	靡 支B開 -ɪĭij 寐 脂A開 -jɨj 袂 祭A開 -jɛj 謎 齊D開 -jɛj
精	齎	齎 齊D開 -jɛj	濟	濟 齊D開 -jɛj	霽	霽 齊D開 -jɛj 祭 祭C1開 -jɛj
淸	妻	雌 支C1開 -jɨj 妻 齊D開 -jɛj	泚	泚 支C1開 -jɨj 玼 齊D開 -jɛj	切	砌 齊D開 -jɛj
從	齊	齊 齊D開 -jɛj	薺	薺 齊D開 -jɛj	劑	嚌 齊D開 -jɛj
心	西	澌 支C1開 -jɨj	徙	徙 支C1開 -jɨj	細	細 齊D開 -jɛj

		西 齊D開 -jɛj		杲 脂C1開 -ɨj 洗 齊D開 -jɛj 躧 支C2開 -ǐj		
牀					滯	滯 祭C2開 -ǐɛj
影	烓	烓 齊D合 -jwɛj				
匣	兮	兮 齊D開 -jɛj 攜 齊D合 -jwɛj	徯	徯 齊D開 -jɛj	系	奚 齊D開 -jɛj
喩	倪	倪 齊D開 -jɛj				
來	離	離 支C2開 -ǐj 犁 脂C2開 -ǐj 釐 之C2開 -ǐj 黎 齊D開 -jɛj	里	邐 支C2開 -ǐj 履 脂C2開 -ǐj 里 之C2開 -ǐj 礼 齊D開 -jɛj	利	詈 支C2開 -ǐj 利 脂C2開 -ǐj 吏 之C2開 -ǐj
					麗	麗 齊D開 -jɛj 例 祭C2開 -ǐɛj

위 표로부터 아래와 같이 齊h韻의 몇 가지 음운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음의 合併이다. 위 도표에서 하나의 小韻에 中古 漢語 A · C1 · D류에 속하는 글자와 B · C2류에 속하는 글자가 동시에 들어가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고 한어에서 A · C1 · D류와 B · C2류는 각각 /j/와 /ǐ/의 서로 다른 개음을 갖는데, 이들이 하나의 소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중 하나의 개음으로 합병되었음을 의미한다. 음성적인 각도로 보면, 저조음성 [+grave]의 자질을 갖는 개음 /ǐ/가 고조음성 [+acute]의 자질을 갖는 개음 /j/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ǐ→j/C_).

예를 들면, 見母 雞소운에는 중고한어 개음이 /j/인 글자도 있고 개음이 /ǐ/인 글자도 있다. 위 공식에 의하여 齊h韻 雞소운의 개음은 /j/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見母 計소운은 중고한어에서 개음이 /ǐ/이었던 글자는 없고 개음이 /j/이었던 글자만 있기에 齊h韻에서는 당연히 개음이 /j/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小韻의 개음은 확정하기 어려운데, 牀母의 滯소운과 來母의 利소운이 그러하다. (4장에서 논의함.)

둘째, 모음의 합병이다. 위 표에서 하나의 小韻에 중고한어 止攝이었

던 글자와 蟹攝 이었던 글자가 동시에 들어가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중고한어에서 止攝과 蟹攝은 각각 모음 /ɨ/와 /ɛ/을 갖는데, 이들이 하나의 소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중 하나의 모음으로 합병되었음을 의미한다. 蟹攝 3·4등운과 止攝은 세음성 개음을 가지므로 중모음에서 고모음으로 변화하였을 여지는 있지만 고모음에서 중모음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黃笑山(1995)은 LMC에 3등운의 개음이 전설화되며 이로 인하여 고모음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즉, 蟹攝과 止攝이 合併하는 현상은 蟹攝의 모음이 고모음화를 겪었기 때문이다(ɛ→ɨ/M_E).

예를 들면, 見母 雞소운에는 중고한어 모음이 /ɨ/인 글자도 있고 모음이 /ɛ/인 글자도 있다. 위 공식에 의하여 齊h韻에서 雞소운의 모음은 /ɨ/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定母 地소운에는 중고한어에서 모음이 /ɨ/이었던 글자만 있기에 齊h韻에서 당연히 개음이 /ɨ/일 것이다.

반면 아래 小韻의 모음은 설명하기 어렵다. 즉 牙音에 計·啓·契소운, 脣音에 篦소운, 舌音에 氐·邸·帝·梯·體·替·題·弟·第소운, 齒音에는 齎·濟·霽·齊·薺·劑·滯소운, 喉音에는 烓·兮·徯·系·倪소운들이다. 이와 같이 꽤 많은 소운이 포함되므로 다른 연구 방법을 찾아보았다. 즉 齊h韻과 같은 중고기원을 가진 支h韻 및 80韻의 『洪武正韻』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80韻의 『洪武正韻』에서 대부분 止攝의 齒音 글자들은 독립되어 支h韻[80][10]을 형성한다. 齒音을 제외한 글자들은 微h韻[80]과 齊h韻[80]에 들어간다.

忌浮(1998:4)에 의하면 微h韻[80]과 齊h韻[80]의 小韻은 성모에 따라 그 분포가 매우 정연하게 상보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微h韻[80]와 齊h韻[80]이 하나의 음운일 것이라 하고, 고모음인 /i/로 재구하였다. 본고 역시 76韻의 『洪武正韻』에서 小韻의 분포를 찾아보았다.

10) 80韻本과 76韻本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위 첨자 '80'을 넣어 분별하도록 하겠다.

〈표-3〉 支h韻과 齊h韻 小韻의 분포 대비

	見	溪	群	端	透	定	泥	來	幫	滂	幷	明	非	奉	微
支h			奇						悲	紕	皮	麋(B)	霏	肥	微
齊h	鷄	谿		氐	梯	題	泥	離	篦			迷(A)			
紙h			技						彼	庇	被		斐		尾
濟h	己	起		邸	體	弟	你	里				米			
寘h			芰						臂	譬	避		費		未
霽h	計	器		帝	替	第	泥	利				寐			
	照	穿	牀	審	禪	精	淸	從	心	邪	喩	影	曉	匣	日
支h	支	摛	馳	施	時	貲	雌	疵	斯	詞	夷	伊	羲		兒
齊h						齎	妻	齊	西		倪(A)	烓		兮	
紙h	紙	侈	豸	始	市	子	此		死	似	以	倚	喜		耳
濟h						濟	泚	薺	徙					徯	
寘h	寘	掣	治	試	侍	恣	次	自	四		異	意	戲		
霽h			滯			霽	切	劑	細					系	二

「표-3」을 보면, 비록 80韻에 비하여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여전히 齒音 및 일부 예외를 제외한 小韻은 대체적으로 상보적인 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아래 일부 예외 소운을 보고 다음 齒音의 小韻을 보겠다.

〈표-4〉 支h韻과 齊h韻 小韻의 분포 대비

字母	聲調	支h韻		齊h韻	
		小韻	字數	小韻	字數
幫母	平	悲	13	篦	2
明母	平	麋(B)	5	迷(A)	6
牀母	去	治	11	滯	1
喩母	平	夷	20	倪	1
影母	平	伊	53	烓	1

위 통계로부터 支h韻의 소운에 수록한 글자들이 齊h韻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齊h韻 소운의 글자는 대부분 1개 혹은 2개이다. 그러나 그 중 明母는 각각 5개와 6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支h韻

의 麋소운이 수록한 글자는 전부 B류 글자이고 齊h韻의 迷소운이 수록한 글자는 A류 혹은 D류 글자이다.[11]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상보적인 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齒音은 80韻의 『洪武正韻』, 『中原音韻』 및 현대 중국어와 함께 보겠다.

〈표-5〉 中古 漢語에서 『中原音韻』까지 止·蟹攝의 분화

76韻本	80韻本	『中原音韻』
支h韻, 齊h韻	支h韻[80](止攝齒音), 微h韻[80], 齊h韻[80]	支思韻(止攝齒音), 齊微韻

80韻本에서 止攝의 齒音을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운을 만들었는데 『中原音韻』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中原音韻』의 分韻은 현대 중국어에 매우 근접되어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支思韻 글자들은 독립되어 /ɿ, ʅ/로 읽는다. 76韻本은 齒音을 따로 독립된 운으로 분리하지 않고 『譯訓』에서 또한 支h韻 齒音을 'ㅡ'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76韻 『洪武正韻』은 /ɿ, ʅ/으로 음운변화를 완성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支h韻은 이미 개음이 탈락된 /ɨj/일 것이고 齊h韻의 齒音은 미처 개음이 탈락되지 못한 /jɨj/일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支h韻과 齊h韻에 모두 齒音이 있어 상보적인 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음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상보적임을 알 수 있다.

즉 76韻에서 支h韻과 齊h韻은 여전히 대체적으로 상보적이며 齊h韻은 /jɨj/으로 재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譯訓』에서 훈민정음 표기를 'ㅣ'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 문헌에서는 'ㅖ'로 표기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重紐h韻에서 찾을 수 있다.

11) 麋소운에는 '糜縻靡薩支B開麋脂B開', 迷소운에는 '彌瀰弥支A開迷麛齊D開'등이 들어있다.

4. ‘ㅖ’와 重紐h韻과의 대응

重紐h韻은『洪武正韻』에서 중복하여 출현하는 소운을 말한다. 전통적인 重紐는 일부 3등운의 순아후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重紐h韻은 어느 운에서나 어느 성모에서나 모두 나타날 수 있어 매우 불규칙적인 분포를 보인다. 또한 重紐h韻의 음운현상은 예외현상들 뿐이다. 重紐h韻은 주를 이루는 음운현상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齊h韻에서 重紐h韻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개음의 합병과 모음의 합병의 흔적을 보여 주고 있다.

重紐h韻은 흔히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齊h韻에서만 출현하는 것과, 支h韻과 齊h韻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4.1 齊h韻에서만 나타나는 重紐h韻

齊h韻 牙音에 見母 去聲 寄·計, 溪母 上聲 起·啓, 去聲 器·契, 舌音에 定母 去聲 第·地, 半舌音에 來母 去聲 利·麗과 같이 5쌍의 重紐h韻이 있다. 이에 대해 성모별로 분석해 보겠다.

1) 牙音

齊h韻 牙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6〉 齊h韻 牙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현황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見	雞	j, ǐ	i̱, ɛ	己	j, ǐ	i̱, ɛ	寄	j, ǐ	i̱, ɛ
							計	j	ɛ
溪	谿	j, ǐ	i̱, ɛ	起	j, ǐ	i̱	器	j, ǐ	i̱
				啓	j	ɛ	契	j, ǐ	ɛ

먼저 개음의 합병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見母의 雞 · 己 · 寄소운, 溪母의 谿 · 起 · 器 · 契소운에는 A · C1 · D류의 /j/와 B · C2류의 /ĭ/가 합병되면서 'ĭ→j/C_'의 음운변화를 거쳐 개음이 /j/이 된다. 남은 計 · 啓소운은 비록 개음의 합병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A · C1 · D류의 글자만 있어 역시 개음 /j/를 가진다. 齊h韻 牙音의 개음은 모두 /j/이다.

다음 모음의 합병을 보겠다. 見母의 雞 · 己 · 寄소운과 溪母의 谿소운에는 止攝의 /ɨ/와 蟹攝의 /ɛ/가 합병되면서 'ɛ→ɨ/M_E'의 음운변화를 거쳐 고모음인 /ɨ/를 갖게 된다. 溪母의 起 · 器소운은 비록 합병이 없지만 止攝 글자만 있기에 여전히 모음 /ɨ/이다.

그러나 見母 計소운과 溪母 啓 · 契소운은 蟹攝만 있다. 見母 計소운과 짝을 이루는 重紐h韻은 寄소운이고, 溪母 啓 · 契소운과 짝을 이루는 重紐h韻은 각각 起소운과 器소운인데 모두 모음이 /ɨ/이다. 重紐h韻의 차이에 의하면 計 · 啓 · 契 이 세 소운의 모음은 /ɛ/일 것으로 추정되며 재구하면 /jɛj/이다. 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면 당연히 'ㅖ'가 제일 적절하다.

그러므로 齊h韻 牙音에서 훈민정음 표기 'ㅖ'는 計 · 契 · 啓소운과 음운적으로 대응한다. (〈표-7〉).

〈표-7〉 齊h韻 牙音에서 'ㅖ'의 음운적 대응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見	雞	jɨj		己	jɨj		寄	jɨj	
							計	jɛj	ㅖ
溪	谿	jɨj		起	jɨj		器	jɨj	
				啓	jɛj	ㅖ	契	jɛj	ㅖ

2) 舌音

齊h韻 舌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8〉 齊h韻 舌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현황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端	氐	j	ɛ	邸	j	ɛ	帝	j	ɛ
透	梯	j	ɛ	體	j	ɛ	替	j	ɛ
定	題	j	ɛ	弟	j	ɛ	地	j	i̱
							第	j	ɛ
泥	泥	j, ǐ	i̱, ɛ	你	j, ǐ	i̱, ɛ	泥	j, ǐ	i̱, ɛ

먼저 개음을 본다면, 泥母의 泥平聲 · 你 · 泥去聲 이 세 소운에만 개음의 합병이 있고 기타 소운은 전부 D류 글자이다. 齊h韻 舌音의 모든 소운은 개음 /j/를 갖는다.

다음 모음의 경우 역시 泥母의 세 소운에 止攝과 蟹攝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고모음 /i̱/로 볼 수 있고 定母 地소운에는 止攝 글자들만 있으므로 地소운도 모음 /i̱/를 가진다. 定母에서 去聲 地소운과 第소운은 한 쌍의 重紐h韻인데, 地소운과 第소운은 개음에 차이가 없기에 모음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第소운은 /jɛj/이다.

泥母의 세 소운 및 定母 去聲의 地소운을 제외한 기타 소운들은 비록 止攝 글자가 없고 오직 蟹攝 글자만 수록하였다고 하지만, 앞서 내용에서 支h韻과 齊h韻이 상보적임을 이미 밝혔으므로 모두 /ji̱j/으로 보겠다.[12]

그러므로 齊h韻 舌音에서 去聲 第소운만 훈민정음 표기 'ㅖ'와 대응한다(〈표-9〉).

〈표-9〉 齊h韻 舌音에서 'ㅖ'의 음운적 대응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端	氐	ji̱j		邸	ji̱j		帝	ji̱j	
透	梯	ji̱j		體	ji̱j		替	ji̱j	
定	題	ji̱j		弟	ji̱j		地	ji̱j	
							第	jɛj	ㅖ
泥	泥	ji̱j		你	ji̱j		泥	ji̱j	

12) 안영희(2011:62-65)에서는 모음 /ɛ/로 보았는데, 기존의 견해를 수정한다.

3) 半舌音

齊h韻 半舌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10〉 齊h韻 半舌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현황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來	離	j, ǐ	ɨ, ɛ	里	j, ǐ	ɨ, ɛ	利	ǐ	ɨ
							麗	j	ɛ

平聲 離소운과 上聲 里소운은 개음의 합병도 있고 모음의 합병도 있어 모두 /jɨj/이다. 去聲 利소운과 麗소운은 한 쌍의 重紐h韻인데, 利소운은 止攝 글자만 있고 麗소운에는 蟹攝 글자만 있다. 만약 四聲相承에 의하면 利소운은 平上聲과 함께 /jɨj/이다. 重紐h韻의 차이에 의하면 麗소운은 /jɛj/로 추정된다.

즉 齊h韻 半舌音에서 麗소운이 'ㅖ'와 음운적인 대응을 이룬다(〈표-11〉).

〈표-11〉 齊h韻 半舌音에서 'ㅖ'의 음운적 대응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來	離	jɨj		里	jɨj		利	jɨj	
							麗	jɛj	ㅖ

4.2 支h韻과 齊h韻에서 나타나는 重紐h韻

支h韻과 齊h韻은 상보적인 분포를 갖는 하나의 음운이므로 支h韻과 齊h韻에서 같은 성모를 갖고 있는 소운도 역시 重紐h韻으로 볼 수 있다. 脣音에 幫母 平聲 悲支h韻 · 邊齊h韻, 明母 平聲 麋支h韻 · 迷齊h韻, 齒頭音과 正齒音의 牀母 去聲 治支h韻 · 滯齊h韻, 喉音에 影母 平聲 伊支h韻 · 烓齊h韻, 喩母 平聲 夷支h韻 · 倪齊h韻 등이다.

1) 脣音

脣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12〉 支h韻과 齊h韻 脣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현황[13)]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幫	支h	悲13	j, ɪ̈	i̇, ɛ						
	齊h	篦2	j	ɛ						
明	支h	糜5	ɪ̈	i̇						
	齊h	迷6	j	i̇, ɛ	米	j, ɪ̈	i̇, ɛ	寐	j, ɪ̈	i̇, ɛ

幫母 한 쌍의 重紐h韻인 悲支h韻과 篦齊h韻에서, 悲소운은 13개의 글자를 수록하고 있고 篦소운은 蟹攝 2개 글자만 있으므로 篦소운은 미처 합병을 이루지 못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즉 悲소운은 /ji̇j/이고, 篦소운은 /jɛj/일 것이다.

明母에도 한 쌍의 重紐h韻이 있는데 糜支h韻과 迷齊h韻이다. 支h韻의 糜소운은 고모음 글자만 있고 齊h韻의 迷소운은 모음이 합병 되어 두 소운 모두 모음 /i̇/를 갖기에 모음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支h韻의 糜소운은 B류 글자 5개를 수록하였고, 齊h韻의 迷소운은 A류 글자 6개를 수록하고 있어 개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糜支h韻소운은 /ɪ̈i̇j/, 迷齊h韻소운은 /ji̇j/로 재구되는데 모두 고모음이므로 'ㅖ'와 대응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齊h韻 脣音에서 'ㅖ'와 대응하는 소운은 篦소운 뿐이다(〈표-13〉).

〈표-13〉 齊h韻 脣音에서 'ㅖ'의 음운적 대응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幫	篦	jɛj	ㅖ						
明	迷	ji̇j		米	ji̇j		寐	ji̇j	

13) 소운아래 숫자는 同音字 글자의 개수 이다.

2) 齒音

齒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14〉 支h韻과 齊h韻 齒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현황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精	支h	貲	j	ɨ, ɛ	子	j, ǐ	ɨ	恣	j, ǐ	ɨ
	齊h	齎	j	ɛ	濟	j	ɛ	霽	j	ɛ
淸	支h	雌	j	ɨ	此	j	ɨ	次	j	ɨ
	齊h	妻	j	ɨ, ɛ	泚	j	ɨ, ɛ	切	j	ɛ
從	支h	疵	j	ɨ, ɛ				自	j	ɨ
	齊h	齊	j	ɛ	薺	j	ɛ	劑	j	ɛ
心	支h	斯	j, ǐ	ɨ	死	j	ɨ	笥$_{12}$	j, ǐ	ɨ
								四$_{9}$	j	ɨ
	齊h	西	j, ǐ	ɨ, ɛ	徙	j, ǐ	ɨ, ɛ	細$_{4}$	j	ɛ
牀	支h							治$_{11}$	j	ɨ, ɛ
	齊h							滯$_{1}$	ǐ	ɛ

위 도표에서 淸母의 妻$_{齊h韻}$, 泚$_{齊h韻}$소운과 心母의 西$_{齊h韻}$, 徙$_{齊h韻}$소운은 /jɨj/으로 재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과 重紐h韻으로 쌍을 이루는 淸母의 雌$_{支h韻}$, 此$_{支h韻}$소운과 心母의 斯$_{支h韻}$, 死$_{支h韻}$소운 역시 /jɨj/으로 재구되는 것 같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앞서 제3장에서 증명한 바로 支h韻의 齒音은 개음이 이미 탈락하였기에 /jɨj/이 아닌 /ɨj/이다. 그러므로 齊h韻을 /jɨj/으로 재구하기에 무리가 없다. 기타 소운은 支h韻과 齊h韻의 상보관계로 모두 /jɨj/이다.

그런데, 心母 去聲에서 支h韻 내에 한 쌍의 重紐h韻 笥·四소운이 있으며 각각 12개와 9개 글자가 있다. 齊h韻에 또 이와 대응되는 重紐h韻 細소운이 있는데 4개의 蟹攝 글자만 있다. 支h韻에서의 笥소운과 四소운의 차이는 아마 개음의 유무에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齊h韻의 細소운은 모음의 합병을 미처 이루지 못한 흔적일 것이다. 때문에 細소운을 재구음 /jɛj/으로 하고 'ㅢ'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겠다.

正齒音 牀母 去聲에서, 支h韻의 治소운은 11개 글자를 수록하였지만 齊h韻의 滯소운은 오직 '滯' 글자 1개 이다. 滯는 중고한어에서 祭韻 知組 글자인데, 기타 祭韻 知組 글자들은 齊h韻에서 모두 齒頭音에 들어가서 /ɟɨj/의 음가를 갖는다. 滯소운이 만약 /ɟɨj/이었다면, 기타 祭韻 知組 글자들처럼 齊h韻의 齒頭音에 들어갔을 것이다. 正齒音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ɟɨj/일 가능성은 낮다. /ɨj/ 음가를 가진 重紐h韻 治소운과 차이를 두기에, 滯소운은 /ɪɛj/, /jɛj/, /ɪɨj/ 중 하나일 것인데, 대체적으로 'ㅖ'와 대응한다고 보겠다(〈표-15〉).

그러므로 齊h韻 齒音에서 'ㅖ'와 대응하는 소운은 細소운과 滯소운이다(〈표-15〉).

〈표-15〉 齊h韻 齒音에서 'ㅖ'의 음운적 대응

聲	平聲			上聲			去聲		
母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精	齎	ɟɨj		濟	ɟɨj		霽	ɟɨj	
淸	妻	ɟɨj		泚	ɟɨj		切	ɟɨj	
從	齊	ɟɨj		薺	ɟɨj		劑	ɟɨj	
心	西	ɟɨj		徙	ɟɨj		細	jɛj	ㅖ
牀							滯	ɪɛj, jɛj, ɪɨj	ㅖ

3) 喉音

喉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16〉 支h韻과 齊h韻 喉音에서 개음과 모음의 합병 현황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小韻	개음	모음
影	支h	伊$_{53}$	j, ɪ	ɨ, ɛ						
	齊h	烓$_{1}$	jw	ɛ						
匣	齊h	兮	j	ɛ	徯	j	ɛ	系	j	ɛ
喩	支h	夷$_{20}$	j, ɪ	ɨ, ɛ						
	齊h	倪$_{1}$	j	ɛ						

影母 平聲 烓齊h韻소운도 滯齊h韻소운과 같이 오직 '烓' 글자 1개 만 있다. 烓소운과 대응하는 重紐h韻 伊소운이 /jɨj/으로 재구되므로 蟹攝 合口 글자 '烓'만 갖는 烓소운은 합구 개음이 아직 탈락하지 않은 흔적일 수도 있고 모음의 변화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흔적일 수도 있어, /jwɛj/ 또는 /jwɨj/로 재구될 수 있다.[14] 하지만 모음과 상관없이 개음 /w/가 있기에 'ㅖ'와 대응되지 않는다.

匣母는 4등운에만 출현하는 성모이므로 端組와 같이 支h韻과 齊h韻의 상보적인 분포에 따라 고모음으로 볼 수 있다.

喻母 平聲 夷支h韻소운은 20개 글자가 있고 倪齊h韻소운도 '倪' 글자 1개만 있어서 倪齊h韻소운은 음운변화의 흔적일 것이다. 倪는 蟹攝 글자이므로 /jɛj/으로 재구하여 훈민정음 'ㅖ'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표-17〉).

〈표-17〉 齊h韻 喉音에서 'ㅖ'의 음운적 대응

聲母	平聲			上聲			去聲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小韻		훈민정음
影	烓	jwɨj jwɛj							
匣	兮	jɨj		徯	jɨj		系	jɨj	
喻	倪	jɛj	ㅖ						

5. 결론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譯訓』의 훈민정음 표기 'ㅖ'는 『洪武正韻』에서 중고한어시기의 止攝과 蟹攝 3·4등운의 開口 글자들이 모음 /ɛ/가 /ɨ/으로의 변화를 미처 완성하지 못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重紐h韻과 음

14) 안영희(2011:65-69)에 의하면, 중고한어 止攝과 蟹攝 合口 대부분 3·4등운 글자는 蟹攝 1등운 글자와 합병하여 灰h韻을 이루며 세음성 개음이 탈락되어 대개 /wɨj/으로 재구된다.

운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고한어시기 止攝과 蟹攝의 3·4등운 開口 글자들은『洪武正韻』에서 支h韻과 齊h韻 두 운으로 나누어 들어가는데, 이 글자들은 점차 근대로 가면서 개음 /ĭ/와 /j/가 합병되고, 모음 /ɛ/와 /i̯/가 합병된다.『洪武正韻』은 重紐h韻으로써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음운변화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支h韻과 齊h韻은 대체적으로 상보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齊h韻은 고모음이었다. 훈민정음 표기 'ㅖ'가 산재되어 있는 중모음 /ɛ/의 重紐h韻과 음운적으로 대응하는 것을『譯訓』의 한계로 보기보다는, 중국 운서『洪武正韻』이 운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운서였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10년이 지나서야『譯訓』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당시 편찬자들의 작업이 매우 어려웠으리라 추측되는데, 그들은 대개『洪武正韻』의 체재를 따르는 한편 최대한『洪武正韻』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운서의 체계에 맞추어 정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는 중국 운서『洪武正韻』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당시『譯訓』편찬자의 시각으로 훈민정음 표기의 음운적인 대응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며, 한어음운연구의 성과로부터 당시 한어의 전사를 위해 사용된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에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였음에 그 의의를 두겠다.

參考文獻

〈자료〉
申叔舟 等(1455),『洪武正韻譯訓』, 高麗大學校, (1973年 影印)
宋濂, 樂韶鳳 等(1375),『洪武正韻』, 亞細亞文化社, (1973年 影印)
余迺永(2000),『新校互注宋本廣韻』, 上海辭書出版社. (2002年 2版)

〈논저〉
강신항(1987),『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7판 2008년.
권인한(1997),「한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권인한(1999),「고대국어의 치음계열에 대한 연구」,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권혁준(2002),「後期中古漢語의 음운체계」, 中國語文論叢 第38輯, 27-56.
김무림(1990),『洪武正韻譯訓의 音韻論的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김완진(1971),『國語音韻體系의 硏究』, 一潮閣.
민지원(2009),『中古漢語 3·4等韻의 介音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박병채(1973),『古代國語의 硏究』, 高麗大出版部.
이기문(1972),『國語學槪說』, 民衆書館.
안영희(2011),「洪武正韻에 나타난 中古漢語 3·4等韻의 合併과 分化」,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李 榮(1956),『切韻音系』, 鼎文書局.
麥 耘(1988),「從尤幽韻的關系論到重紐的總體結構及其他」,『語言硏究』 第2期, 124-129.
麥 耘(1992),「論重紐及切韻的介音系統」,『語言硏究』 第2期, 119-131.
麥 耘(2002),「漢語語音史上中古時期內部階段的劃分」,『東方語言與文化』, 東方出版中心, 147-166.
忌 浮(1998),「洪武正韻支微齊灰分併考」『古漢語硏究』, 第3期, 3-8.
崔玲愛(1975),『洪武正韻硏究』, 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硏究所 박사학위 논문.
董同龢(1965),『漢語音韻學』, 臺灣文史哲出版社(2005年 十六版).
黃笑山(1995),「中古三等韻i介音的前移和保留」,『鄭州大學學報』1期, 111-118.
梁亞東(2003),「漢音與廣韻四等韻之介音」,『長春師範學院學報』 第2期, 118-119.
陸志韋(1939),『古音說略』, 學生書局.

劉廣和(2002),「介音問題的梵漢對音硏究」,『古漢語硏究』第2期, 2-7.
潘悟雲(2000),『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敎育出版社.
邵榮芬(1980),『切韻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沈建民(2007),『經典釋文音切硏究』, 中華書局.
謝美齡(1990),「慧琳反切中的重紐問題」,『大陸雜誌』第81卷 1-2期, 34-48, 85-96.
河野六郎(1968),『朝鮮漢字音の硏究』, 天理時報社.
歐陽國泰(1987),「元本玉篇的重紐」,『語言硏究』第2期, 88-94.
尉遲治平(2002),「論中古的四等韻」,『語言硏究』第4期, 39-47.
鄭張尙芳(1987),『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溫州師范學院學報』第4期, 67-90.

주소: [151-749]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anyingji79@snu.ac.kr
접수일자: 2012.06.28.
심사일자: 2012.07.31.
게재결정: 2012.08.10.

Phonological Correspondence of the Transcribed 'ㅖ' in *Hongmujeongun Yeokhun*

An, Ying-Ji

The finals of some syllables in 齊(Je) rhyme group of *Hongmujeongun*(洪武正韻) are transcribed as 'ㅖ' in *Hongmujeongun Yeokhun*(洪武正韻譯訓, simply Yeokhun), in contrast to the reconstructed /i/ sound of the contemporary historical phonology. This apparent incongruity is a consequence of the existence of doublets(重紐). In *Hongmujeongun*, unlike other rhyme dictionaries(韻書), even the tongue and tooth sounds(舌齒音) have doublets, and difference between doublet words and non-doublet words is associated with medials and main vowels. In this paper, with close observation of doublets of *Hongmujeongun*, it is revealed that most words in Je group had high vowel /ɨ/ as its main vowel and some others mid vowel /ɛ/ instead. Actually, the 'ㅖ'-transcribed Je words in Yeokhun are only matched to the doublet words with /ɛ/. This is not because the lack of consistency of the authors of *Yeokhun*, but because Hongmujeongun's violence of the general rules of rhyme dictionary. In conclusion, although the authors of *Yeokhun* followed mainly Hongmujeongun's classification system, they tried to go beyond the simple one-to-one transcription and made up for the weakness of *Hongmujeongun* with care and knowledge.

Key-words: Hongmujeongunyeokhun(洪武正韻譯訓), Hunminjeongeum(訓民正音), Jiseop(止攝), Haeseop(蟹攝)